

中 감산 했지만 재고떨이 우려... 韓 철강 실적회복 먹구름

중국 조강 3월 생산량 7.8% 줄어
국내 기업, 떨이 반덤핑 제소 준비
'슈퍼 엔저'에 日 제품도 속속 수입

중국산 철강 기업이 낮은 수요와 수익성 악화로 감산에 들어갔음에도 국내 철강사들은 여전히 긴장감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재고 떨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 제소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 역시 중국산 제품의 국내 대량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 줄었다. 장기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생산 억제조치가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중국의 공급 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빈번한 열대성 폭풍이 건설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다. 또한 이미 발표된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여름 비수기 동안 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회복세를 보일지라도 중국 철강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동기대 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 전망된다.

다만 중국 기업의 감산에도 여전히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

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시장에 밀려들면서 국내 업계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으며,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 감소할 정도로 시장 악화 수준은 심각하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수요부진으로 남은 물량을 저가로 대량 판매하며 시장가격을 왜곡하며,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춘 일본산 제품이 속속 수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전년보다 24.4% 증가한 422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221만7000톤, 중국산은 179만톤으로, 각각 전년보다 수입량이 29.9%, 26.0% 늘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포스코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덤핑 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국내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힌 국내 생산자(무응답 제외) 중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열연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철강사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해 반덤핑 제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열연제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국내 철강사들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의 감산과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보수적으로 내다보고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중-한화오션, 美 MRO 경쟁구도

현대중공업, 美 해군과 MSRA협약
한화오션, 필리핀과 조선소 인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함정 MRO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이하 MSRA)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함 등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으로, 미국이 운용하는 함정의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SRA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지난해 5월 MSRA 신청 이후 시설 및 품질 실사, 보안 실사, 재무 실사를 거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MSRA 체결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미 해군 함정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군 당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선, 관공선 등 신조사업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그동안 총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필리핀에서 축적한 MRO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연속착륙으로써 K-함정 수출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

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달 20일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 조선업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필리 조선소가 보유한 도크는 앞으로 MRO 사업 현장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탈 조선소 인수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할 경우 호위함 프로젝트 선정 시 후속함 건조를 위한 현지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화오션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 스마트십 기술, 스마트 야드 기술 등을 필리 조선소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압도적인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중공업, 호주에 350억 변압기 공급

코퍼스트링2032 주요 공급사 참여

효성중공업이 호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참여한다.

효성중공업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전력회사 파워링크(Powerlink)사와 350억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은 호주 퀸즐랜드 내륙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동부 해안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인 코퍼스트링2032(Copperstring2032)의 주요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2032년 브리

즈번 올림픽 개최에 맞춰 전체 발전 전력의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퀸즐랜드는 연간 300억일에 달하는 일조량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용이한 조건을 갖췄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년 간 호주 전력 시장에서 제품 공급, 유지 보수 등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 받아왔다. 지난 2023년에도 남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를 잇는 송전망 사업인 에너지커넥트(EnergyConnect) 프로젝트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참여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



효성중공업이 호주 파워링크사와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식 행사를 가졌다. 대릴 로웰 파워링크 CFO(왼쪽),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효성중공업

성중공업이 글로벌 송전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호주 퀸즐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지난 6월 9일 광양지역에서 개최된 2024 포스코 콘서트 자녀 돌봄교실.

포스코 직원, 평균 자녀 수 2년연속 늘었다

2년 전 1.51명→올해 1분기 1.55명
'가족·출산 친화제도' 시행 영향

포스코 직원의 평균 자녀 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출산 친화제도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 평균 자녀 수는 2022년 1.51명에서 2023년 1.54명, 올해 1분기 1.55명으로 상승하고 있다. 평균 자녀 수뿐 아니라 포스코 직원의 결혼과 출산도 평균보다 빠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결혼 연령이 평균 34세인 것과 비교해 포스코 남성 직원은 이보다 2.1세 어린 31.9세에 결혼했다. 첫 아이를 출산하

는 연령도 국내 남성 평균 33세에 비해 1.9세 어린 31.1세를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 직원의 평균자녀수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따라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직원 평균 자녀 수는 1.59명이었다. 포스코 직원의 출산율 증가 및 이른 결혼의 배경은 포스코에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회사는 분석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 동안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글로벌, 20년간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거래계약

한화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시작했다. 한화글로벌부문은 K-RE100 이행을 위하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20년간 매년 약 5398MWh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앞서 2024년 1월 K-RE100에 가입했으며, 204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전환하겠

다는 목표를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맡게 될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는 한화컨버전스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투자하여 출범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사업 전담 법인이다.

재생에너지 전기는 질산과 질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온산공장(울산 소재)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온산공장 전력사용량의 2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